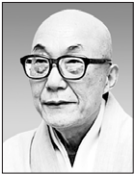


일 주 문



나무갤러리 오픈 기념 선서화전
인간문화재 석정 스님은 4월 8-21일 불교중앙박물관 나무갤러리 오픈 기념 전시회에서 선서화전을 개최했다.



대전 파라미타 문화축제 개최
대전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총재 진철 스님은 4월 25일 서대전광장에서 파라미타문화축제를 개최한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기원법회
강원불교연합회장 도후 스님은 4월 15일 춘천 정법사주지 밀반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기원법회를 봉행했다.



불국사 자원봉사단 후원금 전달
경주 불국사 자원봉사단장 종상 스님은 4월 8일 동국대병원불교회(지도법사 무구)에 후원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파계사 대구 동구청 쌀에 보시
파계사 주지 법광 스님은 4월 15일 대구동구청을 방문해 불우이웃을 위해 쌀 100포를 기탁했다.



뉴욕불교사원聯 '봉축 선화전'
뉴욕사원협회장 원영 스님은 5월 10-16일 뉴욕 플라시오피센터에서 '봉축 선화전'을 열고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세계일화' 등 100여 점을 전시한다.



군포 정각사 봉축문화 나눔 행사
군포 정각사 주지 정업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19일 어린이 연극대회를 열고, 26일 지역결식아동에게 급식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열린선원 약사여래불 점안법회
태고종 교류협력실장 법현 스님(열린선원장)은 4월 19일 서울 열린선원에서 약사여래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백흥 前 서강대 총장 강연회
천태종 관문사 주지 영제 스님은 4월 18일 관문사 육불보전에서 금강대학생 1000여 명과 함께 백흥 신부(서강대 前 총장) 초청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제23대 대불련 총동문화 회장 취임
명호근 회장은 4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3대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총동문화 회장으로 취임했다.

“조계종과 분규 해결에 진력할 터”

봉원사 신임 주지 일운 스님

“반드시 일기 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계종과의 사찰분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4월 12일 진산식을 봉행한 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태고종 서울 봉원사 주지 일운 스님(사진)은 이와 같은 각오로 취임 소감을 대신했다.
일운 스님은 “사찰분규 문제로 조계종 측과 실무위원 회의를 진행할 때 실무위원 3년 이상 참가했었다”며 “회의에서는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 정도의 합의점을 찾았지만 양측에서 보고 과정을 겪으며 거리감이 생기는 모습에 안타까웠다”고 회상했다. 스님은 또 “양측 모두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한다는 것에

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운 스님은 영산재(중요무형 문화재 제50호)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영산재를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미국 UCLA대학과 영산재 시연에 대해 논의 중이며, 호주공연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10-11월 중 ‘제7회 영산재 국제학술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일운 스님은 “영산재는 불교의식이기도 하지만 예술적 측면으로는 하나의 문화”라며 “전 세계가 한국불교문화예술의 대표인 영산재를 보고 싶어하는 만큼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봉원사의 사회봉사 및 교화활동 등도 확대된다. 진산식에서 화환대신 받은 성금을 모아 10kg 쌀 100포대를 구매, 4월 14일 서대문구청 가정복지과에 기부한 것도 이를 위한 한 방안이다. 그동안 매월 진행하던 소년원 및 군부대 위문도 꾸준히 진행하며, 불교계 양로원 한군대를 선정해 지원하는 것도 추진중이다. 봉원사가 지난 40여 년간 지원했던 서울시립양로원이 가톨릭 위탁체제로 바뀌면서 최근 지원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운 스님은 “조계종과의 분규가 해결되면 봉원사 대중스님은 물론 외국인·지방불자들이 유



속하고, 템플스테이도 할 수 있는 새로운 건물을 지을 예정”이라며 “어린이 포교를 위한 유치원 설립, 영산재 상설 공연을 위한 스님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영산재 시연단’ 구성도 계획하고 있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영덕불교사암련 기우법회 봉행



영덕불교사암련(회장 박성)은 4월 15일 영덕읍에서 군민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우법회를 봉행했다. 불국사 화주 성타 스님의 법어와 김병목 영덕군수의 기원낭독, 통수석 및 기우의식이 이어졌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은혜사 봉축점등식 봉행



영천 은혜사(주지 돈관)는 4월 10일 영천 금호강 둔치마당에서 봉축점등식을 봉행했다. 영천사암련 회장 천은 스님, 정희수 국회의원, 김영석 영천시장을 비롯해 불자 1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백제불교회관 등 대전 봉축점등법회 봉행



백제불교회관(이장장 정국)과 백제불교신학단체협의회(회장 이진옥), 대전 사암련협의회 스님들과 불자 500여 명은 4월 14일 대전 계룡로 사거리, 20일 대전시청광장에서 봉축점등법회를 봉행했다.
해철 충청지사장

법주사 봉축 경로잔치 열어



보은 법주사(주지 노현)는 4월 15일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이회희 국회의원(자유선진당), 한운옥 여사(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부인) 등이 동참한 가운데 지역어르신 4300명을 초청해 봉축맞이 경로잔치를 열었다.
해철 충청지사장

전북파라미타 신임회원 입단 선서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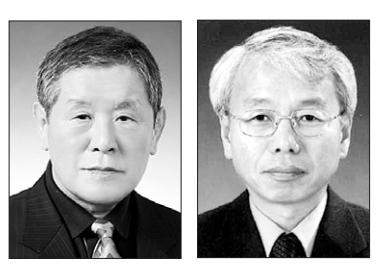


전라북도 파라미타 교사협의회(회장 박상석)는 4월 11일 김제 동국대 부속 금산중학교 법당 '선재'에서 신임파라미타 회원 입단 선서식을 개최했다. 청소년 150여명이 인격완성을 다짐했다.
조동성 전북지사장

“이론과 실천 조화에 노력”

한국불교연구원 한동대 이사장·정호영 원장

“창립 35주년을 맞은 한국불교연구원은 이제 새롭게 출발합니다. 연구원은 초심으로 돌아가 서로가 서로를 부족하고 연대해 깨우침의 길에 매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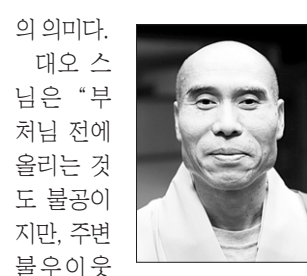
4월 5일 한국불교연구원(이하 연구원) 창립35주년 기념법회 및 정기총회에서 한동대 교수(부산의대·74·사진 왼쪽)와 정호영 교수(충북대·58·사진 오른쪽)가 각각 제3대 이사장과 원장에 선출됐다.
신임 한동대 이사장은 1992년부터 10년 간 연구원이사장, 2000년부터 2년 간, 2006년부터 현재까지 부산구도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정호영 신임 원장은 1976년 서강대 영문학과, 1981년과 1992년 각각 동국대 불교학과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충북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81년부터 한국불교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조동성 기자

신임 한동대 이사장과 정호영 원장은 “척박했던 시기 연구원을 창립해 20년 간 헌신한 이기영 박사의 해안과 열정을 되살려 연구원과 구도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한국불교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연구원에 ‘이론과 실천의 조화’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기영 박사의 활동을 되새겨 보면 시대를 앞선 것들이 많았다”며 “그 뜻과 정신을 현대에 맞는 신화와 불교학 연구로 발전시켜 나아겠다”고 말했다.

“공양미 300석 올려요”

대오 스님 아름다운동행에 6000만원 기탁

고양 흥국사 주지 대오 스님(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사진)은 4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에 지정기탁금 6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금은 고양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2008년 정초부터 흥국사 신도들이 모은 것으로 당초 고양시에 직접 전하려 했으나 자비나눔 사업참여를 통해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지정기탁했다.
전달된 기금 6000만원은 공양미 300석(일반사찰 공양미 80석)의 의미다.
대오 스님은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것도 불공이지만, 주변 불우이웃을 돕는 것도 불공”이라며 “향후 행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더욱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4월 8일 까지 불자들의 성원으로 약정 포함 2억68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선광 스님 대구 남구청에 쌀 기탁

대구 앞산 안일사 주지 선광 스님(사진)은 4월 13일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며 20kg 쌀 115포를 대구 남구청에 기탁했다. 선광 스님은 임병헌 남구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한파에 힘겨워하는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조계종 자비나눔 운동



에 적극 동참하는 취지로 불자들의 정성을 모았다”고 말했다.
선광 스님은 지난 2월 불우이웃 돕기와 전통사찰 보존에 앞장선 공로로 대구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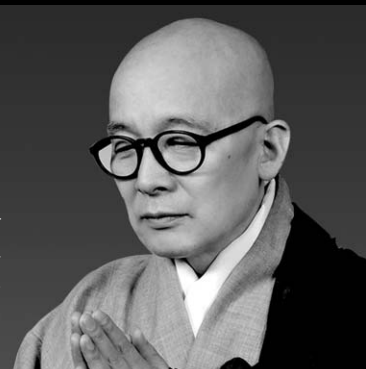
낙태.유산 무보시 동참 위령제

아가야! 미안하다... 세상물라 저지른 일... 지금 참회합니다.

10,800원의 행복 (참회와 가벼움)

- 이행사는 10년만에 하는 단 한 번의 특별행사입니다. 꼭 동참하세요.

당 사찰은 10년간 낙태, 유산된 태아의 슬픈 넋을 위로 하기위해 매년 4회 이상 49재 형식으로 위령제를 봉행 해오던 곳입니다. 2009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생명경시에 대한 경중과 참회의 계기와 낙태유산 경험자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 드리고자 특별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번의 참회에 100원의 정성으로 108번 참회를 통하여 10,800원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어려우신 분은 무보시도 가능합니다) 이 행사는 그간 금전적인 시간적인 이유로 못한 분을 위해 전 목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자비의 정신, 불살생의 정신, 실천의 정신을 기리며...



백운사 주지 지산스님

초중교적 위령제 봉행

- ▶대 상 : 낙태·유산 경험자 남녀 종교불문(타종교도 존중합니다)
▶행 식 : 49재 천도식(우리들 대중형식으로 스님들이 정성껏 해드립니다.)
▶준비물 : 1번 참회에 100원 108참회=10800원뿐 / 분유, 배냇저고리, 장난감 등(위령제 후 전국 미혼모 시설 등에 전량 기부)
▶일 정 : 입재_ 2009년 5월 6일 오전 10시 30분, 회향_ 2009년 6월 24일
▶신 청 : 전화 및 내방,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

대한불교조계종 백운사 금강산건봉사포교원 www.bwjisan.com ☎(02)979-0108, (02)971-1544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퇴마,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 개강일 : 5월 6일(수요일), 5월 8일(금요일) ▶ 교육 기간 : 6주 (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100만원

특기 사항

-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일까?”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초 정락 할장 -

특별상담

- 불자들의 요청에 교육없는날 1일 1분씩만 상담을 받습니다.
○ 빙의와 神病으로 고생하시는 분
○ 자녀의 가출, 습관, 성적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 우울증, 알코올중독, 게임중독, 마약중독 등...

(사)유마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세일빌딩 401호 ☎(02)763-0661~2

개인 특별지도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3일 실습위주로 교육 (hard training), 신분비밀보장